

노형욱 장관, “철저한 사고원인 조사 지시”

- 12일 광주 아파트 사고현장 점검 … 조속한 인명 구조 현장안전 확보 당부 -

□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2일(수)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* 현장을 찾아, 사고 수습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.

* 1월11일 갱폼과 함께 외벽이 붕괴되면서 근로자 1명 부상, 6명 연락두절

□ 노 장관은 “아직 근로자 여섯 분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, 이분들에 대한 조속한 수색과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.”고 강조하며,

○ “아직 추가 사고위험*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현장 안전을 조속히 확보하여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할 것”도 주문했다.

* 아파트 구조물 일부 붕괴, 타워크레인 지지대 3곳 이탈

□ 아울러, “이번 사고에 대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,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할 계획”임을 밝혔다.

□ 노 장관은 “작년 6월 광주 동구 철거공사에서 건축물 붕괴로 무고한 시민 9명이 희생된 데 이어, 어제 다시 이곳 광주에서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.”고 말하며,

○ “건설안전 전반에 대해 다시 꼼꼼히 살피고, 미비점은 신속히 개선 하겠다.”고 하였다.

□ 끝으로 노 장관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,

○ “모든 정부 부처가 힘을 합쳐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밝혔다.

2022. 1. 12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- 어제 오후 이곳 광주 서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아직까지 근로자 여섯 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
-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, 이분들에 대한 수색과 구조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될 필요
- 그리고 아직 추가 사고위험이 남아있는 상황*이므로 현장 안전을 확보하여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
 - * 아파트 구조물 일부 붕괴, 타워크레인 지지대 3곳 이탈
- 국토부는 건축시공, 구조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사고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 후에,
 -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 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처벌 할 계획임
- 작년 6월 광주 동구 철거공사에서 건축물 붕괴로 무고한 시민 9명이 희생된 데 이어, 어제 다시 이곳 광주에서 건설 중인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
 - 건설안전 전반에 대해 다시 꼼꼼히 살피고 미비점은 신속히 개선 하겠음
-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,
 - 모든 정부 부처가 힘을 합쳐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